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08
OCT 23 2019

발간년월 2019년 10월 23일 (통권 제10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MSC, 북극항로 이용 거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해주 한국산단 입주희망 기업 발표
- 크림대교, 1년 만에 케르치 해협 3년치 운행량 달성
- 우크라이나, 중동부 내륙수운·해운 분야서 새로운 활로 개척... 수출입 시 러 우회 및 EU국가와 교류 확대
-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서 제1회 국제투자 포럼 개최

주요 통계

-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주요 동향



MSC, 북극항로 이용 거부

■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가 CMA CGM과 Hapag Lloyd에 이오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NSC는 북극항로로 운항하지 않고도 전 세계로 매년 2,2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북극항로로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 MSC 그룹의 Aponte 사장 겸 CEO Diego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극의 컨테이너 운송 물량이 급증할 경우 대기질의 손상이 높아질 것이며, 북극의 해양 서식지의 생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함

■ CMA CGM은 이에 북극항로 운항 거부

- 북극항로는 북유럽과 북아시아 사이의 노선이 짧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CMA CGM은 환경 문제로 500척의 선박 모두를 북극항로를 통해 항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북극항로 이용은 사고, 유류 오염 그리고 해양 생물과의 선박 충돌로 인한 수많은 위협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고유의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함

■ Hapag Lloyd도 CMA CGM과 함께 북극항로 운항 거부

- Hapag Lloyd Jörg Erdmann 책임자는 북극항로 이용에 대해 Hapag-Lloyd는 현재 북서 항로 혹은 북동 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힘
- 또한 탄소 기반 화석과 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입자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Hapag Lloyd는 북극항로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해주 한국산단 입주희망 기업 발표

참고자료

- a)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msc-joins-major-lines-in-rejecting-the-use-of-arctic-routes/>(검색일: 2019년 10월 21일)
- b)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cma-cgm-says-no-to-the-northern-sea-route/>(검색일: 2019년 10월 21일)
- c)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hapag-lloyd-will-not-use-arctic-sea-passages/>(검색일: 2019년 10월 2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Corporation)는 극동 연해주 한국산업단지의 입주희망 기업 30개 업체를 발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공사와 협력하여 진행됨
- 본 프로젝트에는 약 135억루블이 투자되며 약 1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
- 연해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은 약 50ha임

그림 1.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극동 현지에서 제품 생산 등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에서 알맞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위험 등을 관리,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공사와 본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협회, 대두가공협회 등에서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관심을 보임

■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올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공사는 산업단지 프로젝트 수행계획 계약을 체결함

- 올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올 9월 제 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공사, 한국무역투자공사는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함

김은미 현지 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크림대교, 1년 만에 케르치 해협 3년치 운행량 달성

참고자료

-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649/>(검색일: 2019년 10월 20일)
- b) <https://primamedia.ru/news/850827/>(검색일: 2019년 10월 20일)

■ 2018년 10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크림대교 통행이 허용됨

-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크림대교를 이용한 화물차 운행량은 동 기간 케르치 해협 연락선 운행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락선을 통해 총 85만대의 화물차가 운행된 반면 지난 1년간 (크림대교를 통한) 크림반도 방면 화물차 운행량은 37.7만대에 달했으며 반대방향으로의 운행량은 이에 비해 약 4%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운행량이 가장 많았던 기간은 7월로 양방향 통행량이 73,103대에 달했으며, 24시간 동안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9월 26일로 총 2,931대가 운행됨

그림 2. 크림대교 전경



- 지난 12개월 동안 케르치 해협에서 2,500시간 이상 폭풍우가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대교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으며, 폭풍우가 가장 많이 내린 달은 작년(2018년) 11월로 총 360시간이었음
- 연방정부기관 연방도로공사 'Taman'에 따르면 연락선을 통한 화물차 운송비는 1대당 19,500 루블로 지난 12개월 동안 운송회사들은 크림대교를 통해 140억 루블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음
-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크림대교(2016년 2월 착공)는 현재 러시아에서 제일 긴 다리로 19킬로미터에 달하며 건설비용으로 2,280억 루블이 투입됨
-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빨리 완공되어 2018년 5월 15일 개통식을 가졌으며 일반차량 통행은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됨

- 2019년 8월 말 기준 일반차량의 크림대교 양방향 통행량은 700만대 이상을 기록함
- 2022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크라스노다르 변강과 크림대교를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됨

우송민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dnthdals@naver.com)

우크라이나, 중동부 내륙수운·해운 분야서 새로운 활로 개척...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transport/krymskiy_most_za_god_sdelal_trekhletnyuyu_normu_kerchenskoy_perepravy.html (2019년 10월 3일 검색)
- b) http://dorinfo.ru/99_detail.php?ELEMENT_ID=68152 (2019년 10월 3일 검색)
- c) <https://rns.online/transport/Za-god-po-Krimskomu-mostu-proehali-bolee-720-tis-gruzovikov-2019-10-01/> (2019년 10월 3일 검색)
- d) <https://kubnews.ru/obshchestvo/2019/10/01/po-krymskomu-mostu-za-god-proekhali-bolee-700-tysyach-gruzovikov/> (2019년 10월 3일 검색)

수출입 시 러 우회 및 EU국가와 교류 확대

■ 러시아 산 시멘트 원료가 터키 산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드니프로 강 항구의 환적 및 하역장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증가했음

-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멘트 원료인 클링커(clinker)는 과거 철도를 통해 러시아 산이 우선적으로 수입되어 왔음. 하지만 러시아의 수출규제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러시아 산의 대체재인 터키 산 클링커가 우크라이나 항만을 통해 수입되기 시작했음
- 드니프로 강 항구는 이전까지 클링커 등 시멘트 원료를 취급한 경험이 전무했으나, 올해 9월에 터키 산 클링커가 처음 강 항구에 하역되었음. 2019년 10월 현재 강 항구에서 하역 및 환적된 시멘트 원료의 규모는 3만 톤에 달함. 클링커 하역작업은 노비 카이다키(Novi Kaidaky)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일 1,200톤이 선박에서 차량으로 적재되고 있음
- 2019년 10월 현재 강 항구에서 하역 및 환적된 시멘트 원료의 규모는 3만 톤을 기록했음. 한편 항구 측은 클링커의 환적량을 최대 6만 톤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음
- 한편 드니프로 강 항구는 총 길이 2.5km, 16개의 접안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흘수 3.65m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저장시설 규모는 총 69,000㎥로 이중 58,000㎥는 야적장임

■ 한편 동남부의 마리우폴(Mariupol)항과 이탈리아 노가로(Porto Nogaro)항의 협력 사업으로 양측 물동량이 181% 상승했음

- 2018년 우크라이나 항만공사(Ukrainian Sea Port Authority)는 이탈리아 동부 우디네(Udine)에 소재하고 있는 노가로 항(Porto Nogaro)과 양측 물동량 증가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이호르 바르스키(Ihor Barskyi) 우크라이나 항만공사 마리우폴 지사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올 해 9개월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현재 물동량의 현저한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 올해 3/4분기 마리우폴항에서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철강제품 물동량이 2018년 총 물동량(22만 3,761톤)을 초과했으며, 이는 양측 합의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음
- 한편, 2019년 3/4분기 마리우폴-노가로 간 제품 물동량은 25만 9,000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1%가 상승한 수치임. 작년 3/4분기까지의 해당 노선 철강제품 물동량은 14만 3,276톤을 기록한 바 있음

그림 3. 마리우폴 항에서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철강제품들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서 제1회 국제투자 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4%d0%bd%d1%96%d0%bf%d1%80%d0%be%d0%bf%d0%b5%d1%82%d1%80%d0%be%d0%b2%d1%81%d1%8c%d0%ba%d0%b8%d0%b9-%d1%80%d1%96%d1%87%d0%ba%d0%be%d0%b2%d0%b8%d0%b9-%d0%bf%d0%be%d1%80%d1%82-%d0%b7%d0%b1%d1%96/2019/10/22/> (2019.10.22. 검색)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0%d1%80%d1%96%d1%83%d0%bf%d0%be%d0%bb%d1%8c%d1%81%d1%8c%d0%ba%d0%b0-%d1%84%d1%96%d0%bb%d1%96%d1%8f-%d0%b0%d0%bc%d0%bf%d1%83-%d1%82%d0%b0-%d1%96%d1%82%d0%b0%d0%bb%d1%96%d0%b9%d1%81%d1%8c/2019/10/22/> (2019.10.22. 검색)
- <http://uspa.gov.ua/mpw/?show=novini&doc=marupolska-flya-ampu-ta-talyskiy-port-nogaro-prodovzhuyut-zblshuvati-vantazhoobg-mzh-dvoma-portami-2250> (2019.10.22. 검색)

■ **우즈베키스탄 동부지역에 위치한 안디잔(Andijan)은 15세기부터 역내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 후반 철도 노선 개통으로 산업 단지 및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음**

-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내 제4위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까지도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 모두 생산이 활발한 지역임
- 2019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경제통계 지표에 따르면, 안디잔 주의 GDP 성장률은 약 7% 대로 수도 타쉬켄트의 성장률인 6%대를 앞서고 있음

■ **안디잔 지역의 경제성장 가능성은 현재도 높게 평가받고 있고,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0월 19일, 안디잔에서는 ‘열린 안디잔(Open Andijan)’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투자 포럼이 개최됨
- 이번 포럼은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와 주 우즈베키스탄 인도대사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개국 500명 이상이 참가했음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엘요르 가니예프(Elyor Ganiev) 부총리는 안디잔 지역의 유리한 지정학적 장점을 강조했고, 다수의 해외 투자자들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음
- 가니예프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안디잔 지역에 인가를 받은 신규업체는 2배 이상 늘었으며, 근로자들은 1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함
- 또한 2019년 하반기까지 약 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잠재력을 알리는 데 노력함

■ **안디잔주의 슈크라트 압두라흐마노프(Shukhrat Abdurakhmanov) 주지사는 이번 안디잔 국제투자 포럼이 향후 안디잔 지역의 해외 투자와 잠재성 홍보에 주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구체적으로는 기계공학 분야 17개, 농업 분야 5개, 제약 분야 4개, 경공업 분야 6개 등이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라 발표함
- 특히 최신식 기술을 도입해 농산물 가공과 자동차 산업 부문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대한 잠재력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음

- 또한 올해 최초의 국제투자 포럼을 개최한 만큼, 향후에도 이 포럼을 통해 세계 경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uzdaily.uz/> (2019.10.21. 검색)
- b) <http://www.uzbekembassy.in/> (2019.10.21. 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27 (-1.3%)	6.67 (+0.2%)	17.94	-0.8%
북극해	2.96 (-1.1%)	6.11 (-4.7%)	9.09	-3.5%
발트해	9.42 (-0.2%)	11.19 (-1.3%)	20.61	-0.8%
아조프-흑해	9.91 (+1.2%)	14.7 (+1.0%)	124.6	+0.9%
카스피해	0.23 (+0.2%)	0.41 (-102.4%)	0.64	-0.3%
합계	33.78 (-0.2%)	39.08 (-0.6%)	72.87	-0.5%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3,031.1	66,762.5	328,401.1	64,743.2	4,629.9	2,019.3
광물 제품	1,685,237.5	94,904.4	1,650,965.7	13,786.7	34,271.8	81,117.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574,993.7	12,702.4	1,574,930.8	12,695.5	62.9	6.9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87.5	69,988.1	3,561.7	69,107.8	725.8	880.3
가죽원료, 모피 제품	18.7	2,563.4	10.1	2,544.3	8.7	19.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3,105.5	8,323.4	82,211.0	8,239.7	894.5	83.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531.7	42,198.2	371.8	41,276.6	159.9	921.5
금속 및 금속 제품	39,630.0	72,877.2	39,514.2	68,755.9	115.8	4,121.2
기계류	138,901.6	402,907.0	137,767.2	401,049.5	1,134.5	1,857.5
기타	251,909.4	64,400.4	196,735.2	64,094.6	55,174.1	305.8
합계	2,536,652.9	824,924.3	2,439,537.9	733,598.2	97,115.0	91,326.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3	11,6	0	0	-	-	-	-	3	11.6	0	0
냉동어	113,120	1,424,705.9	275	38,321.5	319	466.3	-	-	113,438	1,425,172.2	275	38,321.5
연어류	23,274	185,700.4	-	-	0	0	-	-	23,274	185,732	-	-
넙치	737	17,760.0	-	-	-	-	-	-	737	17,760.0	-	-
가자미	741	11,984.5	-	-	-	-	-	-	741	11,984.5	-	-
가자미류	1,841	25,544.2	-	-	-	-	-	-	1,841	25,544.2	-	-
청어	8,721	55,873.8	-	-	299	374.7	-	-	9,020	56,248.5	-	-
대구	4,353	139,706.5	-	-	-	-	-	-	4,353	139,706.5	-	-
명태	60,583	737,243.3	-	-	-	-	-	-	60,583	737,243.3	-	-
농어	17	1,399.2	-	-	-	-	-	-	17	1,399.2	-	-
간, 곤이 (어란)	1,599	184,918.6	-	-	-	-	-	-	1,599	184,918.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50	10,270.4	-	-	-	-	-	-	650	10,270.4	-	-
생선필렛, 어육	2,727	138,207.6	82	2,339.6	-	-	-	-	2,727	138,207.6	82	2,339.6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2	1,179.4	138	4,123.4	-	-	-	-	82	1,179.4	138	4,123.4

갑각류	5,027	659,148.5	73	1,570.2	-	-	-	-	5,027	659,148.5	73	1,570.2
계류	4,144	596,737.8	-	-	-	-	-	-	4,144	596,737.8	-	-
조개류	3,163	43,582.6	-	-	-	-	-	-	3,163	43,582.6	-	-
가리비류	322	9,087.2	-	-	-	-	-	-	322	9,087.2	-	-
오징어류, 문어류	2,283	15,056.9	56	1,864.4	-	-	-	-	2,283	15,056.9	56	1,864.4
수산무척추동물	5,143	16,972.0	-	-	0	0	-	-	5,143	16,972.0	-	-
해삼류	428	21,543.6	-	-	0	0	-	-	428	21,543.6	-	-
성게류	189	4,182.7	-	-	-	-	-	-	189	4,182.7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